

“전북출신 새만금개발청장 임명 환영”

최인정 도의원, “지역발전·공공기관 이전 효과 극대화... 국민연금관리공단·기금운용본부도 임명하길”

전북도의회 최인정(군산3) 의원은 13일 새만금개발청장에 낙원 출신인 이철우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장이 임명된 것을 환영했다.

지난 11일 최 의원은 「새만금개발청,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 농촌진흥청 기관장 전북출신 임명 건의안」을 발의해 전북도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최 의원은 “그동안 국가사업이지만 도내 지역의 사업인 새만금사업 협조가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면서 “새만금개발청이 전북 출신 청장 임명에 적극 환영하며

이번 건의안은 지역발전을 위한 충청과 공공기관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합리성을 갖춘 제안이라는 평가다.

특히, 최 의원을 비롯한 도내 정치권은 지난해부터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이 정부 눈치만 보며 전북에는 소홀히 해 경질을 요구해 왔으며, 새만금개발청장은 도의 현실을 잘 아는 전북 출신으로 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최 의원은 “그동안 국가사업이지만 도내 지역의 사업인 새만금사업 협조가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면서 “새만금개발청이 전북 출신 청장 임명에 적극 환영하며

이를 필두로 이전공공기관의 기관장이 전북출신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새정부가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같은 입장은 도와 정부의 협조 관계가 원활하고, 정부인사가 지역균형이라는 외형적인 합리성과 지역사회와 실질적으로 연계가 가능한 내적인 합리성을 갖춘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책임있는 운영과 지역과 밀착된 사업과 활동으로 기관 이전의 취지를 살리자는 뜻이다.

최인정 의원은 “전북혁신도시에 자리 잡은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기금운용본부는

전북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관”이라며 “이들 기관들로 인해 지역발전을 꾀하고, 지역발전이 곧 국가발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전공공기관에 지역출신 기관장을 임명해주기 바란다”며 정부에 다시한번 요구했다.

한편, 신임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은 전북 낙원 출신으로 전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으며, 행정고시 31기로 농림수산식품부 원양협력과장과 국무총리실 평가 총괄정책관, 국무조정실 총무기획관,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장 등을 역임했다.

/김진성 기자

文대통령, 일자리 추경 통과 호소... “늦을수록 국민 고통 더욱 커져”

“추경안 잠자고 있어 안타까워” “대학입시 전형료 절감 방안 강구”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방부 장관·고용노동부 장관 임명 반대로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국회 처리에 난항을 겪고있는 것과 관련해 “어떤 이유에서든 정치적 문제로 국민이 희생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자리 추경이 늦을수록 국민들의 고통이 더욱 커질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이 아직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너무도 안타깝다”며 “국회에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 인사는 인사대로 추경은 추경대로 논의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달리고 싶지만 일할 조직도 예산도 가로 막혀 있어서 참으로 답답하다”며 “8월 고용동향에서 청년실업률이 18년만에 최고를 기록했고, 체감실업률은 청년 4명 중 한명이 백수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정말 어깨가 무겁고,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다”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부치는 것은 정치권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야당에 추경 처리를 거듭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서울·경기·부산·충남·경북·전북·울산 등 여러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의 추경과 연계해서 자체추경을 편성해 심의하거나 통과를 시켰는데 중앙정부의 추경이 제때 되지 않으면 지자체의 추경집행도 상당부분 할 수



학생들과 함께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13일 오전 전주교대 군산부설초등학교를 방문해 '푸른소리 합창단'과 공연 연습 중 대화하고 있다. 김정숙 여사는 지난 5월 전교생 457명이 문재인 대통령 및 여사에게 보낸 응원 손 편지에 대한 화답으로 전주교대 학교 군산부설초등학교를 찾아 어린이들의 꿈과 고민을 듣고, 합창단과 함께 합창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없게 되거나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일자리 추경이 늦어지면 늦어질 수록 그 효과는 반감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선택한 정부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대입수험능력시험이 4개월 정도 남았다. 해마다 수험생과 학부모

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줬던 것 중에 하나가 대학입시전형료”라며 “분명한 산정 기준 없이 해마다 인상이 되고, 금액도 제각각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수시 1회에 10만원 안팎, 또 정시는 4만원대 수준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 넘게 지출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며 “2015년 기준으로 4년제 대학의

입시 전형료 수익이 1,500억원이 넘는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만약 대학입시전형료가 합리적이지 못하고 과도하다면 올해 입시부터 바로잡았으면 한다”며 “교육부가 대학들과 협의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뉴시스

이춘석, 환경부장관 면담 장점마을 문제 해결 촉구

이춘석 의원(익산갑,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실에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만나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생 문제 해결을 강력 촉구했다.

이날 자리에서 이 의원은 낭산 폐석산 문제, 장점마을 암 발생 문제 등 익산의 전반적인 환경문제를 지적하며 환경부 차원에서 별도의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암이 집단 발병한 장점마을에 대해서는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비롯해, 원인규명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주문하며 김 장관으로부터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확보했다.

또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신속한 후속조치가 필요함을 역설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환경보건위원회 심의 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장점마을의 국회 청원을 소개한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민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했다”며 “늘 말보다는 행동으로 사태를 실제로 풀어갈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황현 전북도의회 의장, 역대 의장 초청 간담회

황현 전라북도의회 의장이 13일 역대 의장을 초청해 도의회와 전북 발전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오전 의정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이창렬(4대), 김규섭(5대), 유철갑·정길진(7대), 김병관(7·8대), 김희수·고석원(8대)·김광수(10대) 전 의장 등 8명의 역대 전라북도의회 의장들이 참석했다.

간담회 후 오찬도 함께 했다.

황현 의장은 “10대 도의회 개원 3주년을 맞아 역대 선배 의장님들을 한자리에 모시는 기회를 마련했다”며 “오늘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가 발전해 가고 있는 밑바탕에는 선배 의원님들의 땀과 노력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자치와 분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한 정책보좌관제 도입 등도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전직 의장들은 “지역사회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미력하나마 늘 응원하며 힘을 보태겠다”고 화답했다. /김진성 기자

도 환복위, 보건환경연·남원의료원 현지조정활동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13일 현지조정활동으로 임실읍에 위치한 보건환경연구원 및 남원의료원을 방문했다.

이번 현지 조정활동은 위원회 소관 기관의 업무보고와 추경예산안 심의를 해당 기관에서 직접 청취함으로써 현장감을 높이고, 더불어 현지 기관의 시설을 점검하는 찾아가는 조정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보건환경연구원을 방문한 환경복지위원들은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도민건강을 위한 미세먼지 예경보제와 같은 대기측정망 확충,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통한 안심 먹거리 안전성 확보 등에 대한 추진상황을 듣고, 감염병 예방, 식약품 안전성 확보, 대기,수질,약취,소음 등 부분에서 청정 환경을 만들기 위한 하반기 업무계획 및 이와 관련된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살펴봤다.

이어서 남원의료원 업무보고에서는 거점공공형 산모보건 의료센터 운영, 전문 우수의료진 확보, 시설현대화 및 친절환 병원 만들기 등에서의 그간 성과를 보고받고, 앞으로 의료원 표준진료지침 개발, 병원발전 자문위원회 활성화, 신 포괄수거제 인센티브 등을 통한 경영 효율화 및 지역거점병원으로서 공공보건의료사업 강화 계획을 청취하며 병원 시설을 둘러봤다. /김진성 기자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백두대간을 만나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우리 땅의 뼈대 백두대간의 모든 것

백두대간 역사관

3D 에니메트로닉스관

어드벤처 라이더관

5D 씨름영상관

하나 백두대간 달리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더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천여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셋 노치와 밤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백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서울영상

남원시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로 151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063-620-5754